

[특집] 북극해항로 관련 동북아 주요 국가 동향

2015.9.24.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1. 북극해항로 개발 관련 중국과 러시아간의 협력 증대

- ◆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북극해항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2013년 중국 국영해운회사인 COSCO 보유 Yong sheng호의 첫 운항 성공 이래, 2015년 여름 두 번째 운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중국극지연구소(PRI) 예측에 의하면, 2020년까지 중국국제무역의 15%는 북극해항로를 통해 수송될 것이라 함.
- ◆ 현재, 러시아정부는 북극해항로 개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NSR 항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정부는 수색 및 구조시스템, 항만인프라 및 쇄빙선 추가 건조 등에 주력해야 할 상황으로 NSR 운항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유가하락과 경제위기로 북극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방의 기술과 투자 의존을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음.
-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서방 업체를 대신하여, 러시아의 북극프로젝트 파트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중국과의 협력으로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북극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받게 되었음. 중국투자기금은 야말LNG 프로젝트의 CNPC 지분 20% 외에 노바텍의 지분 60% 중, 최근 9.9%를 획득하여, 중국은 총 29.9%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또한 야말LNG가 서방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행들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 2010년, 러시아 국영선사인 Sovcomflot와 중국 CNPC는 러시아 북극 천연자원을 중국으로 수송하는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 중국 동향

- ◆ 중국 국영해운회사 COSCO는 북극해항로 경유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기적 상업운항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색 중임.
- ◆ 지난 7월22일 중국 COSCO의 Yong Sheng 호는 대련항에서 안산강철공사의 철강재 9,327톤, 장진항에서 풍력발전설비 42개를 적재하고 출항했음. 7월 30일 베링해 진입, 8월 12일 북극해항로를 지나 바렌츠해로 진입하였으며, 8월 19일 스웨덴 Varberg항, 8월 21일 Brake 항에서 각각 하역하였음. 8월 23일에는 벨기에 안트워프항에 도착하여 화물을 적재하였으며, 9월 2일 안트워프항을 출발, 북극해항로를 통해 9월 20일 베링해를 통과하여 9월 29일 부산항을 들른 후 최종 목적항인 Xingang 항에 도착할 예정임.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 ◆ 부산항에 들르는 목적은 급유로 추정되며, 엔트워프항에서 선적된 화물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COSCO는 1980년 엔트워프 소재 Newman Shipping & Agency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Yong Sheng의 북극해항로 왕복운항은 Newman Shipping & Agency사가 에이전트로 참가하여 이루어졌음.
- ◆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정을 통해 북극해항로 운항 관련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푸틴이 시진핑에게 북극해항로 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조건을 약속했다고 보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중국정부기관인 해사국에서 2014년 9월 북극해항로운항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ances on Arctic Navigation in the Northeast Route)을 출판했으며 이 문건은 북극해항로를 통항하는 중국선박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 2016년까지 쇄빙선 1척 추가 건조예정임. (현재 설롱(Xuelong)호 1척 보유중임)

3. 러시아 동향

1) 북극해항로 경유 컨테이너 국제수송 관심

- ◆ 푸틴 대통령은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북극해항로 프로젝트 수행 시에 컨테이너수송 발전에 중점을 두도록 지시함.
- ◆ 또한 지난 7월 19일 러시아극동개발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극해항로 상업잠재력 개발 전략회의에서 러시아정부가 북극해항로를 상업운항을 위한 국제통과수송로로 개발할 의향이 있고, 향후 북극해항로 인프라 개발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해짐. NSR 관련 기존 법령도 개정할 용의가 있으며, NSR 운항에 경쟁원칙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7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Federal Tariff Service를 폐지시켰음. (동기관은 14년 4월 개정된, 복잡한 쇄빙선tariff제도를 만들어, NSR 운항 외국/러 선사에게 큰 타격을 입혔음.)
- ◆ 러시아의 무르만스크-페트로파블롭스크 양 지역간 Arctic shuttle 구상
: 러 학자들의 제안으로 아직은 구상단계이지만, 이 루트에 컨테이너수송선 투입 계획이 검토되고 있음. 초기엔 주로 러시아극동의 수산물이 러시아 서부 유럽지역으로 수송될 것으로 전망되나, 점차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현재 수리중인 원자력화물선 Sevmorputi 호를 2016년 초 시범운항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모스크바 북극물류수송 국제세미나. 2015. 3. 12)

2) 러 메드베데프 총리 북극해항로 개발 종합계획 승인

- ◆ 2030년까지 북극해항로 물동량을 20배로 증대시키려는 계획임(총 8천만톤). 물동량 증대를 위한 주요 제도적 틀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항해 및 수로정보지원, 신규 해도 제작, 항행 규정, 해양오염 보호, 수색 및 구조(SAR) 인프라 구축 등임.
- ◆ 향후 카라해 Sabetta항 취급물량 1650만톤 예상. 사베타항은 야말반도 가스수출 외에,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시베리아 곡물, 우랄의 금속제품, 쿠즈바스 석탄, 타타르스탄&바쉬코르토스탄 석유 등의 수출을 위한 다목적 거점항이 될 것으로 봄. 이 외에 Gazprom Neft사의 Novy port 유전도 매년 500만톤의 석유 수출이 예상된다.

◆ NSR 물동량 증대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10월 중국 Harbin Expo에서 중국 파트너들과 협의 예정임(출처: 2015.6.9. www.mvestnik.ru, www.interfax-russia.ru 2015.09.04. 러시아 정부 회의자료 2015.6-7월)

4. 일본 동향

1) 제2회 북극해항로 활용 전략세미나(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열림, 2015.8.31.)

- ◆ 지난 8월 31일 (주)북일본항만컨설턴트 회사는 '북극해항로 활용에 따른 유럽과 홋카이도(北海道) 간의 새로운 상호관계 창출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 이 날 세미나에서는 '2015년 북극해항로의 이용 동향 및 최근 각국의 동향', '대형화하는 컨테이너선에 의한 해상운송비용의 특징 변화'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음. 또한, 8월 말 미국 알래스카 북극해항로 심포지엄 관련, 각국의 북극해항로 정책과 동향이 소개됨.

2) 국토교통성 민관연계협의회 (1회: 2014.5.30, 2회: 2015.1.28., 3회: 2015.6.30.)

- ◆ 국토교통성은 2014년부터 민관연계협의회를 실시. 현재 3회에 걸쳐 정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전문가, 기업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북극해항로 상업이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 6월 30일에 열린 제3회 민관연계협의회에서는 북유럽에서 개최된 세미나 등을 보면, 이미 북극해항로를 상업운항을 통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것을 전제로 국제법 마련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와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함. 이제 북극해항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북극권을 발착지로 한 항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함.

3) 일본 국토교통성, 2014 울산 북극해항로 국제세미나 자료인용

- ◆ 국토교통성은 1월 28일 열린 제2회 민관연계협의회 제공자료에 2014년 울산 북극해항로 국제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함함.
- ◆ 인용된 부분은 한국과 중국동향 그리고 북극해항로에서의 해상보험에 관한 정보 등임. 특히 한국 동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운항현황과 한국정부의 북극해항로진흥계획, 그리고 한-노르웨이 공동연구 현황의 골자를 소개함.

출처: <http://www.mlit.go.jp/>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 북극영유권

○ UN, 러시아 북극대륙붕 신청서 2016년에 검토 예정

- ▶ Farkhan Khak UN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로모노소프 해령과 북빙해 해저구역이 포함된 북극 대륙붕 경계 확장 신청서 수정본을 월요일에 제출했다고 말함. 북극 대륙붕 경계 확장 신청서는 2016년 2~3월에 있을 제40차 연례회의의 잠정의제에 포함될 예정. 회의 개최일은 올해 12월 총회에서 결정됨.
- ▶ 본 신청서에서는 러시아가 경계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육지영토와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끝이 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0해리를 넘지 않아, UN 해양법협약 제76조 6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함. 본 내용은 대륙붕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출처: <http://tass.ru/> 2015.08.04.

□ 북극해항로 운항

○ 북극해항로청: 무허가 NSR 항로 항행선박

"Nord"호(2015.07.13.), "Atman Ermak"(2015.07.14.), "Kapitan Belodvortsev"호(2015.07.27.), "Tambey"호(2015.07.30.)는 북극해항로청의 허가 없이 북극해항로 해역으로 진입함. 이에 북극해항로청은 본 내용을 연방교통감독청에 알림.

출처: <http://asmp.morflot.ru/>

○ 북극해항로, 가을 항행 개시

- ▶ 원자력쇄빙선 '야말'호와 '바이가치'호가 북극해항로의 가을 항행지원을 지속함. 원자력쇄빙선 '바이가치'호는 8월 30일 무르만스크 항을 출항, 9월 2일에 디손 항에 도착함. 사베타 항에 건설될 3곳의 LNG 공장의 모듈을 적재한 첫 번째 선박을 도선할 계획임. 10월 말에 선적항으로 귀항할 예정임.
- ▶ 원자력 쇄빙선 '야말'호도 북극해항로상에서의 업무를 지속할 것임. 현재는 중국-사베타 항을 운항하는 화물선 "Molengracht"호를 도선하고 있음. '로스아툼플롯'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냉동 수산물 3톤을 적재한 냉동운반선 '가르모니아'호('유즈모르리브플롯'사 소속)를 악천후와 폭풍우 속에 9.4일간 도선하고, 8월 말 무르만스크 항으로 귀항했다고 함.
- ▶ 원자력 쇄빙선 '승전 50주년'호와 '타이미르'호는 선적항에서 수리 중. 쇄빙선 '타이미르'호는 북극해항로로 12월 중순에 복귀 예정임. 올해에 북극으로 7회에 걸쳐 크루즈 운항을 실시한 '승전 50주년'호는 내년 1월까지 연장 운항할 예정.

출처: www.korabel.ru 2015.09.02.

○ 북극해항로로 역사상 최초로 수산물 공급

- ▶ 'Dobroflot'사 공보실은 역사상 최초로 북극해항로를 통해 수산물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함. 알렉산드르 예프레모프 관리자는 "이 프로젝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1년간 제재를 받아왔으며, 외국산 연어 수입금지 조치로 연어가격은 매우 올랐다. 북극해항로를 통한 공급으로 운송물류비 절감과 공급기간을 단축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북극해항로를 통한 운송은 공급시간 단축과 20%의 연료비 절감 그리고 수산물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함.
- ▶ ice class급 냉동운반선 'Garmoniya'호는 동 회사의 공모전에서 러시아 중부지역에서 판매 될 약 3천 톤의 냉동수산물을 선적, 북극해항로 수역 항행허가를 받은 후 8월 13일 아나디르 항에서 동시베리아 해로 출항, 8월 16일 원자력 쇄빙선 '야말'호의 에스코트 하에 사니코프 해협(노보시비르스크 제도)쪽으로 이동함. 무르만스크 항까지는 기후와 얼음 상황에 따라 약 2주 소요될 예정임.
- ▶ 동 그룹은 직원 3000명 이상, 조업선 18척, 세계 최대 공모선 중 하나인 'VSEVOLOD SIBIRCEV'호를 포함한 공모선 3척을 보유하고 있음.

출처: <http://rus-shipping.ru> 2015.08.17.

○ 중국, 북극해항로의 정기 이용 검토 중

- ▶ 핀란드 최대의 스웨덴어 신문 후프부드스타드스블라데트(Hufvudstadsbladet)지에 따르면, 바르베리 항(스웨덴)에 입항한 자사 컨테이너선 'Yong Sheng'을 방문한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국영해운회사 COSCO의 대표들은, 현재 NSR항로를 경유하는 유럽-아시아 간 상업운항을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DWT 19천톤급 화물선 'Yong Sheng'은 7월 8일 중국 대련항에서 출항하여 8월 17일에 스웨덴 바르베리항에 입항하여, 2번째 북극해항로 운항을 완수했음. 현재 NSR항로 운항 경험을 토대로, 채산성을 평가하고 있음.
- ▶ 러시아 정부는 향후 북극해항로 운항과 관련하여 중국기업들과 협의 예정임.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이 문제는 10월 하얼빈 EXPO와 다른 국제무대에서 중국측 파트너들과 논의 할 것."이라고 말함.
- ▶ 전문가들은 열악한 기후조건과 현재 외국 화주들과 운송회사들이 북극해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의 부재로 적어도 현재는 북극해항로의 통과화물운송의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새로운 수에즈운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작년 북극해항로 통과 운송량은 2013년 대비 4.3배 감소함(118만톤에서 27만4300톤으로). 2014년 전체 물류량은 국내운송의 증가로 31.6% 증가한 370만 톤을 기록함.

출처: <http://portnews.ru> 2015.08.21.

○ 유럽에서 사베타항으로 십만 톤 이상의 화물 공급

- ▶ 6 개월 동안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국가들로부터 LNG가스 생산공장 건설 및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항만 인프라 조성용 화물 약 10만 2천톤 (약 USD 5700만)이 사베타항으로 공급됨. 화물은 마카담 (쇄석도로), 이동식 크레인, 용접기, LNG 공장 설비 구성품, 컨테이너들로 세관수속 결과 7천만 루블이상 국가예산에 산입됨.

출처: www.logistic.ru 2015.08.04.

□ 북극일반

○ 러시아 부총리, “중국이 북극해항로의 중요 오퍼레이터 될 수 있다”

- ▶ 러시아 부총리는 중국이 북극해항로의 중요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함. 또 “<신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러시아의 북극해항로는 유럽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노선”이라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 화물 수송의 우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 중국은 북극해항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기반시설(Solikamsk- 아르한겔스크)에 투자할 계획. 영공 개방 공항들을 비롯한 공항 재건축과 북극해항로의 심해항 현대화를 위한 공사에 참여할 지 여부도 검토 중임.

출처: <http://infranews.ru/> 2015.07.06.

○ 북극해항로, 15년 후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을 수도 있어

- ▶ 레오폴드 로브코프스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Shirshov 해양연구소 부소장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대체 해상 루트인 북극해항로가 15년 후에는 겨울에도 얼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함.
- ▶ 부소장은 “만약 15년마다 지금처럼 기온이 몇 도씩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만약 15년 후 북극의 기온이 5도 더 올라간다면, 북극해항로는 겨울 내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기온변화가 일정하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함.
- ▶ 최근 12-20년동안 북극의 연중 평균기온이 5-7도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동 기간전체의 연 평균기온은 1도만 상승했음. 북극 기온을 매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2007년에 북극 해빙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2012년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음. 이 기간 사이에는 반대로 해빙면적이 늘어남.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북극해 해빙면적의 축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출처: www.meteo.nw.ru 2015.07.15.

○ 러 극동연방관구 대표, 북극해항로 프로젝트는 1~1.5년 안에 완성 희망

- ▶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대통령전권대표는, “북극해항로를 통한 운항계획이 언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조금 더 실험운항을 할 필요가 있다. 항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 선박의 통과가능 기간은 3-4개월이다. 항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항로를 풀가동하기 위한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국가들의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제품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시간이다. 준비하도록 하겠다. 만약 1~1.5년만에 북극해항로 프로젝트 운곽이 잡힌다면,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탄화수소 채굴을 포함하여 자국의 북극영토의 경제개발과 더불어 유럽-아시아 간 전통노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북극해항로 발전에 박차를 가해옴.

출처: <http://ria.ru/> 2015.09.05.

○ 러 천연자연부 장관, 민간기업의 북극대륙붕 접근 방안 검토 더 필요해

▶현 연방법은 대륙붕 작업에 민간기업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티'사와 '가스프롬'사만 참여 가능함. 올 봄 천연자연부는 민간기업을 제한하는 현행법 재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함. 돈스코이 장관은 지난 6월, 8월에 개최예정인 연료에너지산업 정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본 안건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가 주관한 회의에서는 검토되지 않음.

▶돈스코이 장관은 "가을에 연료에너지산업 대통령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현재 의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안건이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의 주도로 이뤄지는 북극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면을 검토해야 한다. 아마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해 현재 다소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함.

출처: http://ria.ru 2015.08.16.

○ 표류 관측소 'Severnii Polyus-2015', 북극의 온난화 현상 확인

▶표류 관측소'Severnyi polyus-2015'의 탐사대원들은 국제극관측년(2007~2008)에서 발표된 북극권 지역의 비교적 빠른 온난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정 내용을 확인함.

▶Sychev씨는 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측은 곧 있을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극은 기온이 상승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음의 성질과 물성, 얼음 아래의 생물상의 종조성과 관련 있다. 온난화는 북극해항로 항행가능기간을 연장시키고, 수송선단 건조에 전망을 부여하며, 영구동토지에 부설된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운용조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관측을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함.

▶동 관측소는 지정학적 임무도 수행함. 2013년 6월에 'Severnii polyus 40'이 구조된 이후 첫 러시아의 표류관측소임. 노르웨이는 그 동안 표류관측소 2곳을 유빙에 설치함.

출처: <http://tass.ru/> 2015.08.11.

□ 비즈니스

○ '노바텍'사, 연방국부펀드의 두 번째 자금을 기대

▶ 마르크 제트베이 재무이사는 화상회의에서 '노바텍'이 몇 주 안으로 '야말 LNG 프로젝트'에 연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방국부펀드 자금의 트랑세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야말 LNG 프로젝트'의 주주들은 연방국부펀드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의무 완수를 약속함. 이 프로젝트에 연방국부펀드 자금에서 1500억 루블(약 \$50억)이 배분됨.

출처: www.morvesti.ru 2015.07.30.

○ '로스네프티'사와 '가스프롬'사, 무입찰로 새로운 대륙붕 구역 확보

▶RSC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천연자원부가 러시아 북극대륙붕의 새로운 라이선스 4개 구역을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티'사와 '가스프롬'사에 무입찰로 양도하다는 내용의 최종 결정안을 정부에 발송했다고 함.

▶'로스네프티'사에 바렌츠 해 Gusinozemelskiy 구역, 베링 해 Olyutorskiy, Xatyrskiy 구역이 분배되었음. Gusinozemelskiy 구역에는 D1+D2 카테고리 4억7천만 톤, Olyutorskiy와 Xatyrskiy 구역은 총 4억 톤 이상, 약 2억 톤 CBM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됨.

▶'가스프롬'사는 카라해 Sharapovskiy 구역을 받았음. 자원량은 약 8800억 CBM 가스(D1+D2)로 평가됨.

출처: <http://mortransinfo.com> 2015.07.31.

○ '가스프롬 네프티 노비 포트'사, 대륙붕 프로젝트의 용선회사 선정공모

▶'가스프롬 네프티 노비 포트'사가 대륙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선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선정 공모를 냄. Kamenny 곳(오브 만) 소재 북극 석유 출하터미널에서 탱커로 석유 적재 업무 지원, 사고구조업무 및 비상 석유유출 처리작업 수행, 터미널의 해빙상황 통제를 위해 2015-2017년까지 쇄빙선 임대 목적임.

출처: <http://rus-shipping.ru/> 2015.07.23.

○ '가스프롬'사, 'Shtokman Development'사 지분 100% 확보

▶'가스프롬'사 공보실은 'Shtokman Development'사의 지분(원래 75%)을 100% 확보했다고 전함. 동 회사는 Shtokmanovskoe 가스콘덴세이드 매장지 개발의 첫 단계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과 설계, 건설, 운영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가스프롬'사(75%)와 프랑스 기업 'Total S. A.'사(25%)가 2008년 2월 15일에 설립한 합작회사로 본사는 스위스 주크 시에 소재. 15년동안의 천연가스 예상채굴량은 연 23억7천만 CBM.

▶동 매장지는 무르만스크 북동쪽 약 600km 바렌츠 해 러시아 대륙붕의 중간 304m 수심에 위치. 탐사를 통해 밝혀진 천연가스 매장량은 C1+C2 카테고리 약 3.8조 CBM, 가스콘덴세이드는 약 37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매장지 중 하나임. 2012년 8월에 동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됨.

출처: <http://portnews.ru/> 2015.07.30.

○ 캐나다, 북극 안전항행에 \$1700만 이상 투자할 계획

▶캐나다정부가 북극 항행의 안전 강화 분야에 약 172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함.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캐나다 수산청과 운항통제 지원국에 앞으로 5년 동안 해안경비대 쇄빙선에 4개의 최신 Sonar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임. 북극에서의 사고대응 및 수색구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안경비근무 배치 география 개발할 계획임. 동 조치의 최우선 목적은 사고와 비상사태 예방임.

출처: <http://rus-shipping.ru/> 2015.08.06.

○ 중국 투자자들, 러 아르한겔스크의 Pomore 심수항 신설에 관심을 보여

▶아르한겔스크 주지사 공보실은 중국기업 'Poly Technology'의 대표단이 아르한겔스크 지역을 방문, 아르한겔스크 해항의 심수 구역 건설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중국대표단 수석대표는 "향후 전망이 밝은 프로젝트인 만큼 참여할 생각이 있다. 우리는 자금력과 다른 국가들에 항만 인프라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주 정부가 동 프로젝트 시행의 재무경제모델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낸 후 중국기업의 심수항 건설 참여 조건 등의 문제를 논의 할 예정임.

▶이고르 오를로브 주지사 직무대행은 "새로운 해상 운송허브 건설이 필수적인 'Belkomur'프로젝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실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중국 파트너들이 심수항의 물류능력과 수송능력을 고려해서 수행할 작업의 수준과 규모를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

▶주 공보실은 "동 프로젝트로 아르한겔스크 북쪽 55km에 화물 취급량 연 4500만톤 미만의 항만 인프라가 신설될 예정이다. 심수지역은 DWT 10만톤의 대형 선박까지 입항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화물의 공급거리가 현저히 단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유럽의 국가까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한 기존의 루트에 비해 평균 40%가 단축된다."고 전함

출처: <http://tass.ru/> 2015.08.12.

○ '아톰플로트'사 지도부에 세계 최강 쇄빙선 선보여

▶ '크릴로브스키 연구소'의 공보실은, 9월 2일 원자력 쇄빙선 'Lider'호의 개발 실무회의가 있었다고 전함. V.V. Ruksha '아톰플로트'사 사장, A.V. Kadilov 발틱조선소 사장, E.M. Appolonov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공학대 학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함. 공동프로젝트 논의 외에, 3가지 쇄빙선(원자력 쇄빙선 'Lider', 다목적 천홀수 원자력 쇄빙선, 원자력 쇄빙선 'Lider'의 대체 쇄빙선)의 빙해수역 모형 시험도 진행함.

출처: www.korabel.ru 2015.09.07.

○ 그리스 선박회사 'Dynagas', <야말 LNG>계약 수주

▶ '야말LNG'사는 'Dynagas'사가 건조예정인 4척의 협약선 'Clean Planet'호, 'Clean Horizon'호, 'Clean Vision'호, 'Clean Ocean'호의 장기 가스운송계약을 보증했다고 전함. 북극해항로를 운항하지 않을 때, 협약선들은 벨기에 즈부르제(Zeebrugge)항에서 내빙가스운반선으로부터 가스를 인수받아 운반할 예정임. '야말 LNG'사는 동 항구 터미널의 오퍼레이터인 'Fluxys'사와 작년에 환적계약을 체결함.

▶'야말 LNG'사는 작년 말부터 가스운반선 5척의 구매자를 찾았으며, 자회사 'Yamal Trade'는 이들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선박의 건조를 위해 슬롯을 유보함. 8월에 동 회사는 이들 선박의 건조권을 양도하고 이들 선박을 이용한 가스운송계약을 체결, 지불한 금액(55억 루블)을 되돌려 받음. 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는 비공개 함. 이 5척의 가스운반선을 'Dynagas'사가 건조할 것이라는 것은 동 회사의 측근을 통해서, 그리고 Tradewindsnews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음.

▶ '야말 LNG'사에 따르면, Yuzhno-Tambeykskoe 광구의 연 160억 CBM 가스의 운송을 위해서는 내빙가스운반선 16척과 협약선 14척이 필요하며, 운송은 2017년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함.

출처: www.vedomosti.ru 2015.09.06.

○ 중국 "실크로드 펀드", "야말 LNG" 프로젝트 지분 9.9% 확보

▶ '노바텍'사의 공보실에 따르면 중국 투자펀드'실크로드(SRF)'가 "야말 LNG" 프로젝트 지분 9.9% 매각에 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함. 조인식에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함.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을 것을 포함한 약정된 정지조건 완수 후 계약이 종료될 계획임. 매각 후 '야말 LNG'사의 지분은 러시아'노바텍'사(50.1%), 중국국영석유회사'CNPC'사(20%), 중국 'SRF'사(9.9%)로 나뉘짐.

▶ 'SRF'사 대표는 "야말 LNG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참여로 동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 유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중-러 협력 증진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레오니드 미켈슨 '노바텍' 사장은 "야말 LNG'프로젝트는 야말 Yuzhno-Tambeykskoe 광구에 LNG 가스 연 550만 톤의 액화 생산라인 3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가치는 \$270억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약 \$200억이며, 이 중 중요부분이 중국은행으로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말함.

출처: www.interfax.ru 2015.09.03.

○ 야말용 쇄빙선 2척 건조

▶ 경제발전부의 지원 하에 야말 석유선적터미널을 위한 쇄빙선 2척을 건조할 계획임.

▶ 지원 프로그램에는 4개의 프로젝트가 있음. Icebreaker8급 쇄빙선 2척의 건조가 포함됨. 동 쇄빙선으로 탄화수소가 연중 내내 선적될 것임. 전체 지원은 372억 루블(약 USD 5억4천7백만)이고 이 중 필요한 신용자금은 250억(약 USD 3억6천8백만) 이상임.

출처: www.vesti.ru 2015.08.19.

□ 자원개발

○ '로스네프티'사, 페초라 해 현지조사 착수

▶ '로스네프티'사가 페초라 해 Uzhno-Russkiy 라이선스 구역의 현지조사에 착수함. 조사 프로그램에는 Severo-Gukyaevskaya, Paxancheskaya 지역의 수로측정과 지화학탐사가 포함됨. 조사 목적은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탐사공, 평가공 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임. 지화학조사와 항행, 측지조사는 여름과 겨울 항행시기에 각각 한번씩 계획되어 있음. 연구선 'Kern'호가 조사업무 수행함.

▶ 본 조사는 'RN-Shelf-Arktika'사('로스네프티'사의 자회사)가 전담하며, 환경보호분야의 국제법과 러시아 법령의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됨.

출처: <http://neftegaz.ru/> 2015.08.04.

○ 미국, 'Shell'사의 북극 시추를 최종적으로 허가

▶ BBC는 영국내무부 천연자원이용부서 관계자에 말을 인용, 미국정부가 'Royal Dutch Shell'사의 북극 탐사시추 개시를 최종적으로 허가했다고 보도함. 원유유출 시 필요한 원유유출방지장비를 실은 핀란드 쇄빙선 'Fennica'호가 긴급 수리를 위해 포트랜드 항으로 향하면서 현장에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Shell'사는 유정의 상부부분의 시추 작업만 가능한 상태라고 함.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 'Shell'사는 미국 정부에 허가서 제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 동 구역(지역)의 석유 부존량은 약150억배럴로 예상되며, 'shell'사는 알래스카 북서쪽 추코트카 해와 보퍼트해 대륙붕 시추를 계획 중임. 총 준비기간 7년동안 약 70억달러를 투자함.

출처: <http://mortransinfo.com> 2015.07.23.

□ 북극환경

○ 푸틴, 개정된 해양 독트린 승인

▶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해군의 날을 맞아 새로운 해양 독트린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새로운 독트린에서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주요 관심지역을 지정함. 또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군사적 기반을 이동하려는 NATO의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명기함.

▶ 향후 러시아 해양 활동에 대한 4가지 정책적 방향(해군활동, 해상운송, 해양과학, 대양과 연안 수역의 유용광물의 개발 및 채굴)을 제시하고, 주요 전략 관심 지역으로 대서양, 북극해, 태평양, 인도양, 카스피해, 남극해 총 6곳을 지정함.

▶ 북극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원자력 쇄빙선단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들며,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함. 로고진 부총리는 현재 대형 원자력 쇄빙선 'Arktika'호와 'Sibir'호, 'Ural'호의 건조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각각 2017년, 2019년에 인도예정이라고 푸틴 대통령에 보고함.

▶ 새롭게 발표된 독트린은 러시아 해양 활동의 단기, 중장기적 계획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독트린 전문은 대통령 공식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출처: www.interfax.ru 2015.07.26.

○ 북극 협력 국제회의 8월 알래스카에서 개최

▶ 미국 국무부 공보실은 미국 정부의 주도로 북극에서의 상호 협력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서 8월 30-31일에 걸쳐 개최된다고 전함. 동 회의에는 북극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영국, 독일, 덴마크, 인도, 아이슬란드, 스페인, 캐나다, 한국,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일본, 유럽연합이 초대됨.

▶ 공보실에서는 국제적, 각 국가차원에서 북극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또, 북극이사회 창설 20주년에 맞춰 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고 말함. 금년 4월 말부터 2017년까지 미국이 의장국의 지위를 맡음.

출처: www.arctic-info.ru 2015.07.24.

○ 푸틴, 북극해항로를 컨테이너운송항로로 만들 것 지시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극해항로 프로젝트 시행 시 컨테이너 운송에 특히 중점을 두라고 정부에 지시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는 북극해항로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교통회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바이칼-아무르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장과 현대화를 2017년까지 약 5천억 루블(약 USD 74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언함.

출처: www.interfax-russia.ru 2015.09.04.

□ 일본기사

○ 일본 웨더뉴스, 2015년 북극해 해빙 변화경향 발표

▶ 웨더뉴스의 글로벌 아이스센터가 발표한 2015년 북극해 해빙변화 경향에 따르면, 7월 30일 현재 북극해 해빙면적은 약 700만km²(하루에 약 10만km²정도씩 축소)로, 2007년, 2011년, 2012년에 이어 관측사상 4번째로 적은 면적을 기록했다고 함. 9월 평균, 최저 해빙역 면적은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특히 러시아 해안에서부터 해빙 용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카라해 서부와 랍테프해(Laptev Sea)동부, 추크치해(Chukchi Sea)에서는 이미 대부분 해빙이 녹은 상태임.

▶ 러시아측 북동항로의 개통시기는 8월 중순, 캐나다 측의 북서항로는 9월 초로 예상되어, 올해는 두 항로 모두 2년만에 해빙역에 들어가는 일 없이 통행 가능할 전망.

출처: <http://weathernews.com/> 2015.7.30.

○ 일본 국토교통성, 북극해항로에 관한 민간합동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성의 종합정책국은 6월 30일 제3회 북극해항로에 관한 민간합동협의회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성을 비롯 외무성과 문부과학성 등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성은 작년 한 해 동안 북극해항로에서의 해상운송동향과 인프라 정비 상황, 2015년 해빙 변화 경향 등 다양한 정보 제공함.

출처: <http://www.mlit.go.jp/> 2015.6.30.

| 특집 | 북극영유권 | 북극해항로운항 | 북극일반 | 비즈니스 | 자원개발 | 북극환경 | 일본기사

○ 일본 북극해항로활용전략연구프로젝트팀, 제2회 세미나 개최

- ▶지난 8월 31일 북극해항로활용전략연구프로젝트팀은 '북극해항로 활용에 따른 유럽과 홋카이도 (北海道) 간의 새로운 상호관계창출 가능성 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츠카 나츠히코 (주)북일본항만컨설턴트의 기획부장과 후루이치 마사히코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초청되어, 각각 '2015년 북극해항로의 이용동향, 및 최근 각국의 동향'과 '대형화하는 컨테이너선에 의한, 해사운송비용의 특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출처: <http://www.jptmk.com/> 2015.8.31